

반도체, 생산능력 · 가동률 상승세

2005년 4/4분기 세계 생산능력 주당 158만장 ... 한국 25% 차지

세계 반도체시장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05년 4/4분기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은 200mm 웨이퍼 환산기준 주당 158만 3000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능력은 2005년 1/4분기 140만4000장에서 2/4분기 142만8000장, 3/4분기 148만3000장에 이어 4분기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 분	2005.Q1		Q2		Q3		Q4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능력	가동률
세 계	1,404	85.6	1,428	88.5	1,483	90.7	1,538	92.6
200mm	913	88.3	935	91.3	981	92.9	985	94.9
300mm	91	92.8	100	90.7	115	92.7	128	97.6
파운드리	233	75.2	252	83.0	257	91.7	264	94.9
국 내	-	94.8	-	96.3	-	96.4	-	96.7

생산 가동률도 4/4분기에 92.6%를 기록해 2005년 1/4분기 85.6%, 2/4분기 88.5%, 3/4분기 90.7%에 이어 꾸준히 상승했다.

2005년 4/4분기 국내 생산능력은 월 154만장 수준으로 28% 증가해 전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도 97%로 선두권을 유지했으며, 특히 300mm 웨이퍼는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양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플래시 메모리 생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양사의 과감한 설비투자과 기술개발들이 경쟁력 우위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산업은 통상 3분기에 최고 가동률을 기록한 뒤 4분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최근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가 기업들의 생산량 확대로 이어져 가동률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SICAS에 따르면, 세계 300mm 웨이퍼의 생산능력은 주당 11만5000장으로 전년동기대비 76.5% 증가했으며 전체 웨이퍼 생산의 19%를 차지해 반도체 기업들의 300mm 설비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전세계 파운드리 가동률은 약 95%로 2005년 1/4분기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동부아남반도체, 매그나칩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 역시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6/02/27>